

“금년을 技術躍進의 해로”

李과기처장관 초청 朝餐會 성황리에 열려

基礎科學 지원위해 차관 1천2백만불 도입



〈이날 李과기처장관은 「올해를 技術약진의 해」로 정하고 모두 힘을 합하여 技術자립의 길로 전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월11일 오전 8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李正五과기처장관을 비롯 과학기술관련 학회 및 단체장, 연구소장등 17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朝餐會를 가졌다.

이날 조찬회는 閔寬植과총회장의 人事에 이어 李正五과기처장관의 「84년도 과학기술정책방향」에 관한 연설이 있음 과학기술계 인사들간의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閔寬植회장은 人事를 통해 『新年賀禮를 겸해서 1년만에 갖는 조찬회가 성황리에 열리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올 한 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설계가 뜻대로 성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閔회장은 이어 『우리의 살길은 오직 技術개발의 길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科技處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해서 듣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李正五 과기처장관은 「84년도 과학기술정책방향」에 관한 연설을 통해 ▲ 지난해의 회고와 신년도 결의 ▲ 84년도 과학기술정책방향등을 내용으로 한 새해시책방향을 밝히면서 『“올해를 技術躍進의 해”로 설정하고 정부 및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한데뭉쳐 技術立國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의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李正五과기처장관 演說要旨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주관하는 과학기술관련 學會 및 團體長들과의 朝餐會에 참석하여 '84년 새해의 과학기술정책방향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금년은 새해 벽두부터 각계에서 技術立國의 필요성을 열띤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 지난해의 회고와

新年度の 결의 ◇

제5공화국 출범후 技術드라이브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81년도에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82년도는 技術振興擴大會議을 설치했으며 83년도에는 산업계기술개발의 애로점타개, 技術혁신정책의 심화, 技術개발성공사례의 발굴포상, 대통령각하의 技術혁신을 위한 강한 집념으로 정부의 정책의지로 구현했

으며 80년대 기술혁신만이 선진조국창조의 지름길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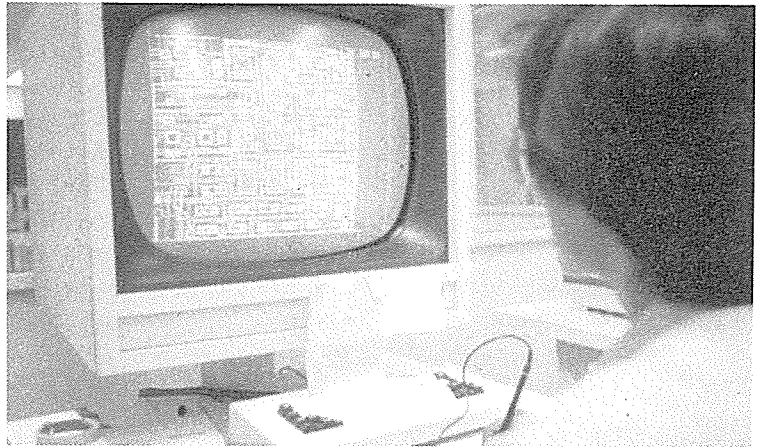
그 결과 산업계의 기술개발 활동이 매우 고무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가 대신 고조되고 있으며 대학의 기초 연구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施策의 주요성과로는

民間企業의 기술개발활동이 활성화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81년 53개에서 121개로 증가되었고 연구원수도 81년 1,593명에서 5천3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투자비 또한 81년 668억원에서 2천3백83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組稅 및 金融上의 지원 등 많은 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 특히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를 종전의 소득의 20%에서 30%로 확대하였고 기술 및 인력 개발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수 있게 했으며 연구기자재에 대한 관세를 70%까지 감면토록 개선한 바 있다. 이밖에도 기술의 수요창출을 위한 정부구매제도를 개선, 주요품목에 대한 구매예시제를 확립시켰으며 우수연구요원의 확보를 위한 연구요원의 兵役特例措置로 33개 연구소의 42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산업기술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개발자금을 기술개발(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을 통하여 지난해 1천2백58억원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천6백50억원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핵심기술의 개발을 위해 83년도에 수행된 특정연구개발사업



은 181개과제에 정부출연금 2백19억원과 기업부담금 1백26억원 등 총 3백45억원이 투입되었다.

82년도 과제로서 수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일부는 이미 기업화 단계에 있으며 83년과제는 계속 연구중에 있는데 성공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과제를 보면 「NMR-CT 개발」, 「光纖維기술개발」 「전자, 반도체용 특수합금개발」 「인공 신장용 Hollow-fiber Dialyser 개발」 「인화 Aluminum합금 및 살충제 개발」 「교육용 소형컴퓨터개발」 「디스토마치로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공공기술 분야의 원자력, 에너지, 채광기술, 대륙붕탐사 기술분야에서도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983년을 「情報産業 육성의 해」로 정하고 컴퓨터개발 보급에 힘써왔다. 이에따라 컴퓨터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仁川體典 電算化에 성공, '88올림픽 電算化의 전초전을 마련했다.

이러한 고무적인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해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힘을 합하여 앞으로의 기술개발에의 정책의지를 담은 제 5차 경제사회 발전

계획 과학기술 5개년계획 수정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黨政 협의를 거쳐 보완작업을 마친 바 있으며 금년초에 과학기술 부문 수정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 수정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오는 86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對比 2%로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對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비율을 6대4로 높이고 이를 위한 각종 유인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 84년도 과학기술

시책 방향 ◇

첫째, 82년 1월 최초로 개최된 技術振興擴大會議을 정착시킴으로써 거국적 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주도정책의 광장으로 활용하여 80년대 技術革新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술우위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범국민적 기술혁신풍토조성에 힘쓰도록 하겠다.

둘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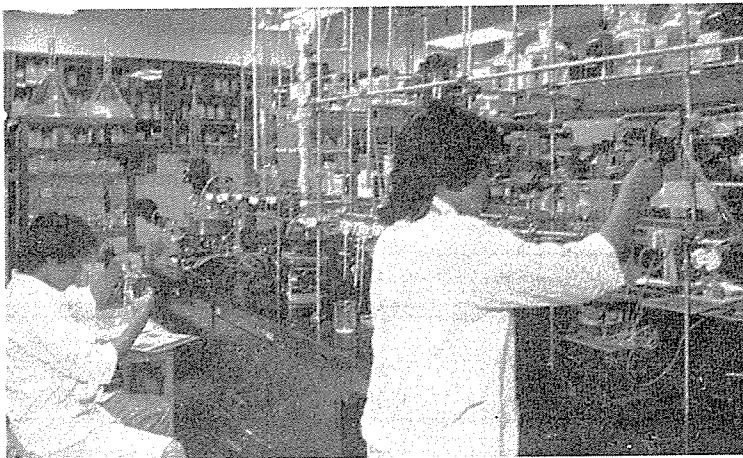
國家主導의 국책연구사업에 120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자원등 공공기술개발과 산업기술

중대형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은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토록하여 정부 100억원, 민간기업 150~200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반도체, 정밀화학등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째, 基礎科學의 계획적육성을 위해 과학재단으로 하여금 IBRD차관 1천2백만불을 도입하도록 하여 이 자금으로 대학의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기초과학의 발전은 산업기술 발전의 원천이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초연구사업을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사업에 연계시켜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네째, 고급과학기술 인력의 양성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理工系 석, 박사에 대한 장기인력수급 계획을 작성, 오는 91년까지 3만명가량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을 國策의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핵심고급인력의 집중적인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및 理工系대학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인력의 활용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외연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學術학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고보조에 의한 학회학술활동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한국과학재단을 통한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를 금년 7월중에 科總주최로 개최토록 할 예정이다.

여섯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육성 발전을 위해 大德연구단지를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이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정립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개발, 산업기술개발, 공

공기술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산업기술은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며 협동연구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산업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中小企業중심의 研究組合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집약형신기업 (Venture Business)의 창출, 지원 및 중소기업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Venture Capital 투자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덟째, 선진국의 尖端산업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美國과는 年例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특히 컴퓨터 Software, 有毒性物質처리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기상기술통보등에 관한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日本과는 금년 5월중에 韓·日과학장관 회의를 再開하며 高性能磁氣素材개발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협력을, 불란서와는 微細電子技術, 遠隔探查通信, 해양개발등의 첨단기술에 대해 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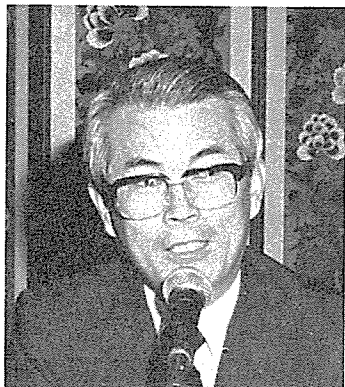
과기처는 이밖에도 정보산업의 육성, 原子力안전성확보, 기상업무 현대화등에도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과기처는 금년을 “技術躍進의 해”로 정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힘을 합하여 기술입국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

“技術革新意志 확산·심화시킴”

李과기처장관, 新年辭통해 밝혀



科學技術處는 올해에 半導體,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아울러 技術集約型 新企業을 육성하므로써 技術革新을 가속화하는 한편 산업계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李正五과기기술처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급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대학을 중심으로한 기초 연구의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지난 한 해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계의 활동이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고 과학을 창달하고 기술을 혁신하여야만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과 인식이 어느때 보다도 높았던 한 해였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계속하여 甲子年 새해가 과학기술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躍進의 해」가 될 수 있

도록 산업계, 과학기술계, 학계에 충만한 技術革新의 의지를 더욱 확산 심화시키고 우리의 과학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밀고 나가는 「總力精神의 해」가 되어야겠다』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어 제5공화국의 출범이래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는 괄목할만한 발전과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특히 ▲연구기관의 활성화와 ▲협동연구체제의 구축, ▲고급인력의 국제적 양성, ▲연구투자의 확대와 ▲거국적 기술개발의 촉진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 산업의 비약적 발전 ▲반도체분야의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성과 ▲유전공학의 연구태동과 육성법의 국회통과 그리고 ▲에너지 자원활용 ▲기계기술고도화, 정밀화학, 소재 공업분야 등에서 놀라운 기술개발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끝으로 『우리 백만 국내외 과학기술인들은 국가발전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적 대열에 앞장서야겠으며 각자의 전공분야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과학기술입국에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技術士 자격증 수여

科技處, 23회 64명에게

科學技術處는 12월21일 과기처상황실에서 1983년도 제23회

技術士 자격증 수여식을 거행했다.

李正五과기처장관을 비롯 趙庚穆차관, 李應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사장, 崔鍾浣한국기술사회회장등 관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는 제23회 기술사합격자 107명 가운데 19개 과기처 소관분야 기술사자격시험에 합격한 64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64년이래 기술사자격 취득자는 3천59명이 되었는데 이들의 직업별 현황을 보면 건설업체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26.7%), 그다음이 일반기업체 (22.6%), 기술용역업 (20.8%),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14.7%), 그리고 대학교수 (6.4%), 연구기관 (3.7%), 기타 (5.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기술사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 ▲ 기계 23명 ▲ 금속 1명 ▲ 화학 1명 ▲ 전기 8명 ▲ 통신 1명 ▲ 조선 3명 ▲ 토목 41명 ▲ 건축 16명 ▲ 광업 2명 ▲ 에너지 1명 ▲ 국토개발 9명 ▲ 안전관리 1명

한편 韓國技術士會는 이날 기술사자격증 수여식이있은뒤 정부 제2종합청사 후생관에서 기술사환영회를 베풀고 이들을 격려했다.



〈李과기처장관(右)이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科學技術審議委 設置키로

技術振興 계획 樹立위해

政府는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기술발전의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科學技術審議委員會(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다.

陳懿鍾국무총리는 1월13일날 한국에너지어클럽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 金斗煥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과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 및 연구기관의 고위관계관을 위원으로하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陳총리는 이 위원회의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매달 기술진흥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하고 현재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 科學技術振興擴大會議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遺傳工學 안전지침 마련 保健院, 파생위험 예방위해

國立保健院(원장 池達顯)은 유전공학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잠재적 위험성을 미리 막아 국내의 유전공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전자(DNA)의 재조합을 위한 안전실험지침」을 마련했다.

이 실험지침은 ▲ 실험종사자와 실험연구 기관장에 대한 안전확보 책임부여 ▲ 재조합 유전자가 실험실 밖으로 확산돼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

적 생물학적 봉쇄방법 ▲ 재조합된 유전자의 보관 및 운반방법 ▲ 실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훈련과 특수건강진단 ▲ 실험의 안전을 위한 조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특정실험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도아래 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특히 유전공학 연구종사자들은 연5주 이상의 精神 倫理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실험실 밖으로 나가기전에 철저한 소독과 오염제거작업을 함으로써 조작된 유전자가 실험실 밖으로 묻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84년도 科學技術賞 시상요령公告

2월20일까지 科總서 접수

科學技術處는 1984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시상계획 및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을 확정, 공고했다.

제17회 과학의 날(84. 4. 21)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창달과 진흥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이 과학기술상은 科學賞, 技術賞, 技能賞, 科學技術 奉仕賞 등 本賞(대통령상, 상금 각 2백만원)과 振興賞(과기처장관상·본상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으로 시상된다.

과학상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며 기술상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자에게, 기능상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년간의 기능연마로 생산성제고 또는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자에게, 그리고 과학기술봉사상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새마을기술지도 및 과학기

술제몽 보급으로 과학기술품토 조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되는데 本賞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진흥상으로 대체하게 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소정양식의 과학기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2부를 비롯 소속기관장동 의서, 이력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각 2부와 공적증빙자료, 시·읍·면장 발행 신원증명서 각 1통과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사진(3매)을 구비하여 오는 2월 20일까지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강남구 역삼동 635-4, 전화 566-4147~9)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 결정은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정부의 상훈절차에 따라 결정하며 본상 후보자로 추천된자중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한자는 과학기술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다.

시상식은 오는 4월21일 제17회 과학의 날 기념식장에서 거행된다.

陸軍〇〇부대 慰問

科總職員・會員團體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12월 29일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군 00부대를 방문하고 大韓法醫學會를 비롯한 115개 산하회원단체 및 科總직원들이 마련한 칼라TV 4대와 난로, 오일바나, 보온물통등 잇가 2백 5십 8만여원상당의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날 위문품 전달식에는 閔寬植과총회장과 崔相巖부회장, 愼武賊부회장, 申兪均부회장, 鄭重鉉한국물리학회장, 金東漢대한토목학회장, 李康模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추가 접수분은 다음과 같다.

- ▲ 한국잡사학회 20,000 ▲ 대학나학회 20,000 ▲ 대한화학요법학회 20,000 ▲ 대한수의학회 20,000 ▲ 한국고무학회 20,000 ▲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20,000 ▲ 기타 20,000

韓・英기술심포지움 開催

3월8일, 런던상공회의소서

在英韓國科學技術者協會(회장 신우승)와 런던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韓・英기술심포지움이 3월 8일 영국의 런던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韓・英修交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강영훈 주영한국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측에서 한국개발원의 연하청박사를 비롯 4명의 특별초청연사와 영국 롤스스로이스사의 D. Evans씨등 영국 산업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5명의 초청연사등 모두 9명의 초청강연이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영국과 같은 구라파선진국의 고급두뇌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이전에 관한 제반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해 집중 토의하게 된다.

첨단과학기술도서 비치
科總 부설 전문도서관

지난해 科總부설로 문을 연 科學技術전문도서관이 주종도서인 컴퓨터 공학과 생물공학분야의 전문서뿐만 아니라 점차 인접관련분야의 자료도 확보해 나감으로써 과학기술 전문도서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어나가고있다.

元老과학기술인 吳禎洙(한국무역진흥(주) 회장)의 회사금 1억5천만원을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도서관은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전문도서와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연구자료를 구비하여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해 83년 10월 설립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미래의 첨단기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컴퓨터공학과 생물공학의 해외 정기간행물과 전문도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컴퓨터 공학분야는 General Topics를 비롯 Computer System Organization, Sofeware, Data, Theory of Computation, Mathematics of Computing, Infor-

mation Systems, Computer Apprication 등의 주제 도서와 특히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Series 등 160여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생물공학분야는 Enzyme engineering, Genetic engineering, Biochemisty 등의 도서 40여권과 Methods in Enzymology Series 100여권이 비치되어 있다.

이와함께 국내 이학, 공학, 농수산, 보건 종합부문의 학회지 및 논문집 130여종 1만 2천여권과 각계에서 기증한 각종 과학기술 관련도서들이 비치되어 있다.

이 도서관의 이용은 大學院 이상의 과학기술자 및 과학기술관련 회원들로서 관내열람에 한하여 필요한다내에서 복사가 가능한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토요일은 12시30분까지이다.

故 金容瀾차관 묘비제막

동작동 국립묘지서

버마 하웅산묘소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순국한 故 金容瀾 과학기술처 차관의 묘비제막식이 1월6일 상오11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엄수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미망인 李正順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과 李正五과기처장관등 과학기술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 佛敎儀式에 이어 묘비제막, 비문낭독, 헌화 및 분향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學會

動靜

韓國纖維工學會

지난해 창립20주년을 맞아 韓·日공동연구발표회등 의욕적인 사업을 펼쳐온 韓國纖維工學會(회장 李在坤)는 올해에도 韓·中섬유공학 공동기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작년에 이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월12일부터 18일까지 中國纖維學會와 공동으로 대만에서 개최하는 韓·中섬유공학 공동학술발표회에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에 春季학술발표회, 8월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섬유공업에서의 省力化 및 에너지절감」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0월에는 秋季학술발표회를, 11월에는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와 공동으로 「직물공업에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학회는 또 작년에 호평을 받은 섬유공학강좌(섬유계측)를 오는 7월에 실시하는 한편 섬유공학교육 및 연구사업으로 대학원교과과정 연구사업과 전통 섬유기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비롯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 관계기관과의 용역사업과 82년도에 발간된 섬유사건의 補正작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열렸던 한국섬유공학회 주최 창립 20주년 기념 韓·日 공동연구발표회 광경〉

大韓電子工學會

지난해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해 온 大韓電子工學會(회장 高瓊植)는 금년에도 각종 학술행사를 활발히 개최함으로써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진작시키는 한편 전문분야별 기술세미나를 개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고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10개 전문분야별 세미나로 「광통신공학 기술세미나」 「반도체기술 교육 세미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세미나」 「광전자 신호처리 기술세미나」 「Robot」에 관한 기술세미나 「메이타통신 워크숍」 「위성통신 워크숍」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선진외국인 강사를 초빙하여 최신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함께 전문대학교육과정 연구발표회와 대학 및 전문대학 전자공학 교육과정연구발표회도 아울러 개최할 계획이다.

동학회는 이와함께 학회지를 매월(회지 6회, 잡지 6회) 발

간, 수준높은 논문과 최신기술해설을 수록함으로써 회원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 및 대화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의 광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大韓地質學會

大韓地質學會(회장 李正煥)는 구립 2~3일 양일간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198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孫致武박사의 「甘浦지역의 松田層下 不整合과 그의 年代層序的의의」에 관한 특별강연과 경북대학 金永琪박사가 연구한 「Micro Crack의 性狀」등 47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地質學 발전에 진력하고 있는 地質學者에게 연구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학회가 마련한 地質學會賞 및 感謝牌수여가 있었는데, 1983년도 대한지질학상에는 「角肉石類의 안정관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충북대 羅基昌박사에게 금메달과 상패가 수여되었고 또 지질학회 발전에 공이 많은 郭明燦씨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大韓金屬學會

大韓金屬學會(회장 韓鳳熙)는 올해에 支部 및 分會조직을 활성화하여 학회활동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학계, 산업계, 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금속학회의 사회적 기반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금년에는 특히 숙원사업인 金屬事典발간작업에 착수, 내년 말 발행을 목표로 금속용어 해설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 4년 전과정에서 거쳐야 할 표준실험 63개 과제를 수록한 金屬工學實驗 단행본과 금속공학 시리즈 및 금속공학 연습시리즈의 수정판을 발간하고 금속기술자를 위한 기술서적을 발간하여 회원들의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올 학술행사로는 제철·제강 심포지움을 포함제철과 공동주최로 1/4분기중에 개최하고 오는 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4월 28~29일 경북대학교에서, 추계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10월 27~28 양일간 홍익대학교에서 개최하며 해외 저명학자 초청 특별강연회 및 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학회산하 전문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 기술 및 정보교환을 도모하고 공동과제를 연구함으로써 금속공업 기술향상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空氣調和冷凍工學會

空氣調和冷凍工學會(회장 朴勝德)는 올해에 年4회에 걸쳐

學會誌를 발간하고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소식을 매월 발간, 회원들의 동정과 학회 소식을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空調冷凍衛生工學 年람을 작성하며 회원명부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올 학술행사로는 5월에 공조 분야에 관한 강연회 및 춘계논문발표회를 공조 위생부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며 7월에는 냉동부분위원회 주관으로 냉동 분야에 관한 강연회를, 11월에는 소방설비분야에 관한 강연회 및 추계논문발표회를 소방부분위원회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학회는 이밖에도 학술용역사업으로 국내연구소 및 기업체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美國空調學會등 외국학회와의 학술교류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韓國物理學會



韓國物理學會(회장 鄭重鉉)는 올해에 제2회 서울 국제반도체 물리학심포지움을 비롯 韓·中 Workshop등 국제적인 학술행사를 활발히 개최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物理學會는 특히 올해에 '85년도에 개최예정인 제14회 國際物理學會의 개최준비 위원회를 구성, 대외개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外國의 저명물리학자를 초청, 물리학강좌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粒子物理學분과등 학회산하 8개 분과별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인데 특히 「고체물리학분과」를 비롯, 「열 및 통계물리분과」 「광학 및 양자, 전자학분과」 「플라즈마분과」 등은 外國의 저명학자를 초청, 세미나 및 워크숍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학회산하 6개 支部도 각종 학술행사를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며 物理學 교육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회를 개최, 학생증원에 따른 대학물리학 교육개선을 위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대학일반물리학 실험교과서 제7판을 발행하여 실험교육의 상향평준화와 표준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國內의 물리학 실험기전사회를 유치,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국산실험기기, 제작업체의 추천, 지도업무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國內의 物理學者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편 關連학회 및 기관과의 협동사업의 개발 추진 등 산학협동 및 학술용역사업을 활발히 전개시켜 나갈 방침이다.